

종교·복지

단신

광주 엠마우스 복지관 1~2일 '수퍼풋살대회'

광주 엠마우스복지관(관장 천노엘)은 1~2일 이틀 동안 광주 월드컵 경기장 내 보조경기장에서 '제6회 엠마우스 수퍼풋살대회'를 개최한다. 광주 선광학교, 목포 공생재활원 등 광주·전남 15개 장애인 기관 및 학교에서 16개 팀이 참가한다. 경기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근거한 국제특수올림픽(SOI) 경기규칙 5번째 축구로 진행된다. 첫 날은 선수단의 등급 분류와 환영 행사를 진행되고, 2일 하루 동안 경기가 이어진다. 우승팀에게는 금메달과 단체 트로피가 주어진다. 문의 062-524-7701.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종정 법전 스님)은 한국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제22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을 연다. 19세 이상(8월7일 현재)의 대한민국 국적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8월 7~10일까지 4일 동안 접수를 받는다. 응모비는 1점 당 5만원(1인 2점까지 가능)이며 응모부문은 회화·조각·공예 등이다. 시상식 및 전시회는 10월17일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대상 1명에게는 상패와 1천500만원이 수여된다. 문의 02-2011-1772.

부산-판문점-평양 잇는

20개 도시 십자가대행진

한일기독교선교사와 일본복음선교회가 공동 주최하는 '2007 부산-판문점-평양(PPP) 십자가대행진'이 오는 8월1일부터 20일까지 광주·목포를 포함한 한국 16개 도시와 판문점, 그리고 북한 4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19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과 8·15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부산을 출발해 경주, 대구, 진주, 제주, 목포, 광주, 전주, 수원, 춘천, 서울, 판문점, 개성, 사리원, 평양 등, 서울 1천200km(3천리)를 순회하게 된다. 6~7일 목포와 광주를 지난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각 도시에서 십자가를 메고 시가지 퍼레이드를 펼치고 부흥 집회를 갖는다. 주최 측은 오는 9월 15~16일은 미국 LA 할리우드에서 코리아타운까지 십자가대행진도 계획 중이다. 문의 02-3473-1772.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하안거(下安居)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장성 백양사 대웅전에서 스님들이 결제(結制)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위정필기자 jrwi@kwangju.co.kr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깨달음에 이르라"

장성 백양사 3개월간 하안거 돌입... 전국 사찰도 참선수행 시작

"...구명구리부여한(求名求利不如閑) 향상기관하족도(向上升關何足道) 육식출승친절처(欲識出僧親切處) 일경순의과백년(一領鶯衣過百年)." ("머리를 찾아 허둥대도 한가함만 못하고/향상의 기관 따위 무엇 그리 대단한가/이 몸의 얻은 불법 알고 싶다면/일생 가는 이 한 벌의 누더기 보라 하라.) 지난달 31일 오전 조계종 18교구 본사인 장성 백양사 대웅전에서는 방장(方丈)인 수산(壽山·86) 스님의 하안거(下安居) 결제(結制) 법회가 늦게 끝났다. 가부좌를 튼 70여명의 스님들은 3개월 간의 마음 공부에 앞서 내린 노승의 말씀을 새겼다. "모든 것이 본래 자리인데 또 무엇을 찾는다. 짓업니까. 이미 순에 권 것을 찾아 해매는 모습은 우스운 일일 따름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지요. 자성을 밝히는 것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가한 마음과 몸짓 그 속에 있습니다." 음력 4월 보름인 이날은 하안거의 시작 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70여명의 스님들은 이미 전 날 백양사에 도착해 여장을 풀고 하안거를 준비했다. 백양

사를 비롯 전국 사찰 100여곳에서 음력 7월 보름까지 계속되는 참선수행이 시작됐다. 하안거가 시작되면 스님들은 외부 출입을 일체 삼가고, 백양사 내 운문선원과 백암선원에 틀어박혀 참선에만 몰두하게 된다. 스님들은 안거 기간 동안 필요한 청소·공양·난방·잠자리 등의 일도 모두 나뉜다. 백양사 주지 성오(性悟·60) 스님은 "우리에게 안거는 지난 3개월 간의 만행(萬行)을 되돌아보고 반성·공부하는 기간"이라며 "비록 흔적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스스로 안정을 얻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 기간의 공부는 안거가 끝난 뒤 세상에 봉사하는 것으로 실천한다고 덧붙였다. 안거 기간 동안에는 새벽 3시 예불을 시작으로 밤 10시 취침 전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참선을 한다. 3개월 간 말을 아예 하지 않는 묵언수행(默言修行)을 행하는 스님도 있다. 결제 법회가 끝나자 스님들은 각자의 선방으로 발걸음을 뒀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안거(安居) = 불교에서 스님들이 하절기(음력 4월 보름~7월 보름)와 동절기(음력 10월 보름~정월 보름) 3개월 동안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것.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북방 불교에서 실시하는 독특한 수행법 가운데 하나다. 부처가 우기(雨期) 동안 거어나오는 벌레를 죽이지 못하도록 돌아다니는 것을 금한데서 유래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法傳) 스님은 하안거를 하하 앞둔 지난달 30일 '옳도다. 옳지 않다'라는 제목의 결제 법어를 내렸다. 법전 스님은 단나라 고승 마곡보철(麻谷寶徹) 선사 사 장경(章敬) 선사와 남전(南泉) 선사를 방문해 자기의 수행경지를 보였다가 두 선사로부터 '옳다'와 '옳지 않다'는 상반된 답변을 들었던 고사를 제시하면서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깨달음의 참 경지가 무엇인지 이번 결제철에 옹몽정진하여 답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종교칼럼



최도응

6월의 사이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끈 채 세웠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다 찢으며 찢으며 피었나니/바람과 비에 찢으며 꽃잎 따듯하게 피었나니/찢어지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도종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초등학교 5학년 때, 6월 5일이면 담임선생님께서 "여러분! 내일은 현충일이예요. 집에서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 묵념을 하세요!"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익숙한 어조의 말씀이었기에 다음날 10시에 집에서 놀던 나는 사이렌 소리에 목숨을 올렸던 기억이 떠오른다. 지금도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박종철 대종사는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세계를 위한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고,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국가를 위한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고,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사회나 종교를 위한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다"는 가르침을 주신다. 흔들리며, 때론 찢으면서도 피워낸 꽃들로 보여준 것들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삶이었기에, 지금의 우리는 자유와 번영된 생활을 하고 있다. 모진 비 바람에도 이 꽃을 피워내기 위해 먼저 나서주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음은 자각한다면 어찌 이분들을 소홀히 모실 수 있을까?. 6월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공도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고 극진히 모시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그리고, 다짐한다. 나머지 사이렌을 울리는 주인공이 이 될 수 있는 값있고, 의미 있는 일에 오늘을 바치자고.. (원불교 광주교구 교수)

국내 천주교 신자 476만8,242명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총 인구의 9.6%

전년보다 2.2% 늘어 한국의 천주교 신자는 지난해 말 현재 476만8천24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장익 주교)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06년 천교 현황 및 복구지정'에 따르면 한국 천주교 신자는 국내 총인구의 9.6%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466만7천283명에 비해 2.2% 증가했다. 10년 전인 1996년(356만2천766명)에 비해서는 33.8% 증가했다. 신자 수는 4천6명으로 지난해(3천867명)에 비해 139명이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4천명 선을 넘어섰다. 한국인 신자 수는 3천820명, 외국인 신자는 18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영세자는 14만7천747명으로 지난해(14만8천175명)에 비해 428명 감소했으며, 주일 미사 평균 참석자 수는 124만974명으로 2005년(125만4천572명)에 비해 1만3천598명 줄어 들었다. 본당 수는 1천476개로 지난해(1천447개)보다 29개 증가했고, 공소는 1천89개로 지난해(1천63개)보다 26개 감소했다. 신부 1인당 평균 신자수는 1천2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발간된 교황청의 '2005년 교회 통계 연감'에 따르면 세계 가톨릭 신자는 11억1천496만6천여명으로 세계 인구의 17.3%(2005년 6월30일 기준 유엔 인구연감)를 차지하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

"공무원 희망 장애인 다 모이세요"

"공무원 되고 싶은 장애인 모이세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은 1일 오후 3시부터 합평군 합평읍 공단 산하 전남 직업능력개발센터(원장 배진홍)에서 장애인 공무원 수험생과 공직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직설명회'를 연다. 청년 실업률 증가 추세에 따라 비장애인에게도 공무원의 취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2003년 1.87%에서 2005년말 2.25%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부터는 경찰·교사 등으로 장애인고용 의무화가 확대되

중앙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달라진 장애인 공직 채용', '국가 균형인사정책 설명 및 공직 채용 시 주의사항', '공무원 인사·교육 훈련·후생 복지 제도', '장애인 인사 제도' 등을 안내하게 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운영 중인 '공무원 및 교원 시험 준비반'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1일 오후 2시30분 합평역이나 합평터미널에서 센터까지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타면 된다. 문의 061-320-7113.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장비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직설명회' 오늘 합평 직업능력개발센터서

대인동심일부동산 (02)223-1120, 5120...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업 동업자 구함

LC타워(주) (0)972-8004... 첨단지구 LC타워... 사업 동업자 구함

일가공인중개사 (0)234-8216... 상가건물 매매... 전원주택

한일지도판매(주) (0)529-1409... 2007 최신광주지도 책 판매개시!!

호성공인중개사 (0)521-6024... 대지매매(교회, 원, 투룸부지)...

토우드공인중개사 (0)62384-1995... 토지

다우공인중개사 (0)523-8114... 오봉리 전원주택지 (평당 30만)...

법원경매 지지경매컨설팅(주) (062)226-0047... 법원경매 컨설팅 서비스